



초보불자들의 수행모임인 화림선단은 격주 열리는 사경법회로 회원들의 신심을 다진다. 일배 한구절 사경에 몰입한 회원들의 모습에서 지열한 구도열이 엿보인다.

불교를 체득하기 위해 사경법회를 여는 초보 불자들의 수행모임, 화림선단(花林禪團). 꽃과 숲을 닮고 싶어 이름도 '화림(花林)'으로 불린 화림선단의 모임 운영방식은 어느 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구석이 많다. 서로 다른 직업, 지역, 나이에 불교하고 법을 나누는 도반이 된 화림선단의 사경법회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불은 대자비로 흐른 지혜의 물이요, 먹은 능엄선정의 굳은 먹입니다. 선정의 먹으로 지혜수를 갈아서 실상법신의 문자를 옮겨 씹습니다."

3월 14일 밤, 12명의 불자들이 오는 '사경 관념문'이 의의상 내손동에 위치한 용화사(주지 덕민)의 관음전에 울려 퍼진다. "포르탁" 목탁이 일제에 절을 하고 또 한번 울리면 <반야심경> 경구를 독송한다. 다음은 허리를 숙이고 경전을 옮겨 쓴다. 법당안은 사경의 구도열로 뜨겁게 달구어진다. 이들은 3년전 '불교가 좋아서' 실천하는

불자로 살기 위해' 모인 수행, 의왕, 군포 등 인근지역 직장인들로, 6개월여 전부터 화림선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고 연령층도 3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사경법회가 열린 날,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서면 김성진 교사(제천능고 조경과)와 좌복을 깔고 입정에 들었다. 그는 회원 가운데 가장 먼 충북 제천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왔다. 법우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 때문이다.

밤 8시, 용화사 지철 스님의 집전으로 법회가 열렸다. 사경은 <천수경> 독경과 관음장경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야 시작했다. 막대뚝이 손경수 세무사(수원 가람세무회계컨설팅)가 목탁을 들고 회원들의 마음을 다잡는다.

"사경을 할 때에는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경은 불법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자기 것으로 실행하는 기도이며 수

수원 '화림선단' 사경법회 현장

글씨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씹습니다

의왕 용화사서 격주로 수행... 독송·요가도

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반듯하게 줄을 맞춰 선 뒤 주변을 가지런히 정리하고서야 사경에 입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스러지기를 수십번, 한쌍과 일어날 때마다 대화를 거듭했다"는 이미향씨(요가 강사)는 시종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사경에 몰입하고 있었다.

사경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출장을 취소한 박승철씨(건축사 대표)도 무릎을 꿇은 채 한자한자 써내려가는 모습이 자못 진지하다. 그는 "늘 독송하던 경전인데도 사경을 해보니 뜻을 이해하게 돼 절로 환희심이 일어난다"며 "사무실에서도 마음이 산란할때면 사경을 한다"고 속삭여 털어놓았다.

초심자가 대부분인 화림선단은 모임이 결성된 이후 경전 독송과 요가를 스스로 익혀왔다. 그러면서 초정법사의 어려운 법문을 마다했다. '법문 없는 법회'로 6개월을 끌어온 것. 그래서 택한 것이 사경이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민화기 변호사는 "아무리 좋은 불교라도 그것이 갖춰져있지 않으면 답을 수 없다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갖춰나가기 위한 수행으로 사경을 택했다"며 "일야아 몸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 불교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2주에 한번 모이는 화림선단 회원들에게 법회는 직장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는 시간이다. 늦은 시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직장불자회와는 달리 직장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 회원들의 마음이 한결 편하다.

화림선단은 사경 외에도 요가와 참선을 겸하고 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다담으로 고간의 수행과 일상을 교감한다. 10시가 넘는 시간, 그제서야 회원들은 용화사 입주문을 나선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탁수

우리는행서울불자회 회장

우리단체 이사람



"바쁜 업무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회원 모두가 불교가 생활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 불자회의 회원을 합쳐도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올해말 3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합니다."

이회장은 어렸을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88년 다시 사찰을 찾았을 때도 그 때문이었다. 자광(慈光)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자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이회장은

불교의 생활화 실현

회원 확대 가장 시급

경전을 끼고 산다. 출·퇴근 때에는 차 안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사무실에서 금강경 독송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이회장은 불교의 생활화와 회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말로 취임인사를 대신했다. 지난 2년여간 총무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이였다. 특히 신입회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인사업무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서울과 부산에 결성돼 있는 불자회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큰 원을 세웠다. "우리는행의 전체 직원은 1만

이회장은 고문과 부회장, 부·차장 등 30명이 넘는 인원으로 새 임원·집행부를 구성했다. 우리는행 불자회에 주어진 속세를 함께 풀어나갈 소중한 도반들이다. 현동관 총무부회장(금천구청지점 지점장)은 "무거운 짐을 이탁수 회장님에게 맡겼지만 집행부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불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박봉영 기자

"생명의 존귀함 삶의 기본"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 '환경문화학당' 열어

"티끌 하나 풀 한포기 물 한방울 밥 한그릇에도 우주가 있고 만중생의 노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여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이치를 알아,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맞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3월 15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 법당에서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이 낭랑한 목소리로 퍼져나왔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매일 열리는 정기법회를 지난 2월부터 환경을 주제로 한 테마법회로 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회장 도기환) 회원과 가족들.

지난달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승 스님의 법문에 이어 이날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이태수 고문이 초빙됐다.

"고운 털을 얻기 위해서 사육과 살생을 합리화시키거나 음주와 사냥, 낚시 등으로 즐거움을 얻려 해서는 안된다"며 "오른쪽 유·생명의 정진작용과 사대(四大)·생명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바르게 보고 참보살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태수 법사의 말에 회원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불교환경연대와 연계해 열리는 '환경 테마법회'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회원들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낮시간대에 법회를 열고 있어 부부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점도 테마법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테마법회의 아이디어를 낸 정찬연 교화부장은 "법회의 형식을 약간 바꾼 것 뿐인데 회원들이 늘 열린 법회에서의 지루함을 느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가 매일 한차례 열고 있는 환경문화학당은 인기가 많다. 법우회 회원들이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을 낭독하고 있다.

끼지 않는다"며 "내친검에 회원들의 관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 환경파괴 현장과 생명존중 사상이 깃든 사찰의 모습, 친환경 삶을 살아가는 사람 등을 둘러보는 현장학습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문화학당의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어 신기미한 한 도기환 회장은 "수행법이나 불교문화와 같은 주제를 법회 프로그램으로 끌어올 생각"이라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군포경찰서 '자비회' 창립

3월 15일 첫 법회 봉행

군포경찰서에도 '자비회'라는 불자 모임이 생겼다.

자비회는 3월 15일 군포경찰서 경승실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행활동을 시작했다. 또 초대회장은 방상수 정보과 경사를 선출했다.

방상수 회장은 "회원들이 신심을 쌓을 수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내실을 기하면서 회원들의 화합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자비회는 앞으로 교리공부와 성지순례, 관내 북

지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실행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영호남 산악인 합동산행

4월 10일 통영 불모산서

부산불교산악회와 대구 대경불교산악회, 광주자비산악회는 4월 10일 통영 사랑도에 위치한 지리산과 불모산, 옥녀봉으로 합동산행을 떠난다. 박웅락 부산불교산악회장, 권윤기 대경불교산악회장, 오길수 광주자비산악회장 등 영호남 산악인 불자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산행은 지역간 벽을 허물고 불교를 매개로 우의를 다지는 자리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dvertisement for KT's 'Let's KT' service, featuring a graduation cap and smartphone. Text includes: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벡(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개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벡(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벡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로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벡(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벡'', '아이벡 일회용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아이벡(484,000원)'. Bottom text: '구입문의 :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벡(=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